진실을 만나다 - 밀레
WWW.MILLET.CO.KR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광주 23/30℃ 목포 23/29℃ 여수 24/27℃
단기 4345년 (음력 7월 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302호 1판 2012년 8월 23일 목요일

광주·전남 對中 경쟁력 아직 멀었다

한중 수교 20주년

지리적 이점·인프라 우위 활용 못해 교역·관광객 유치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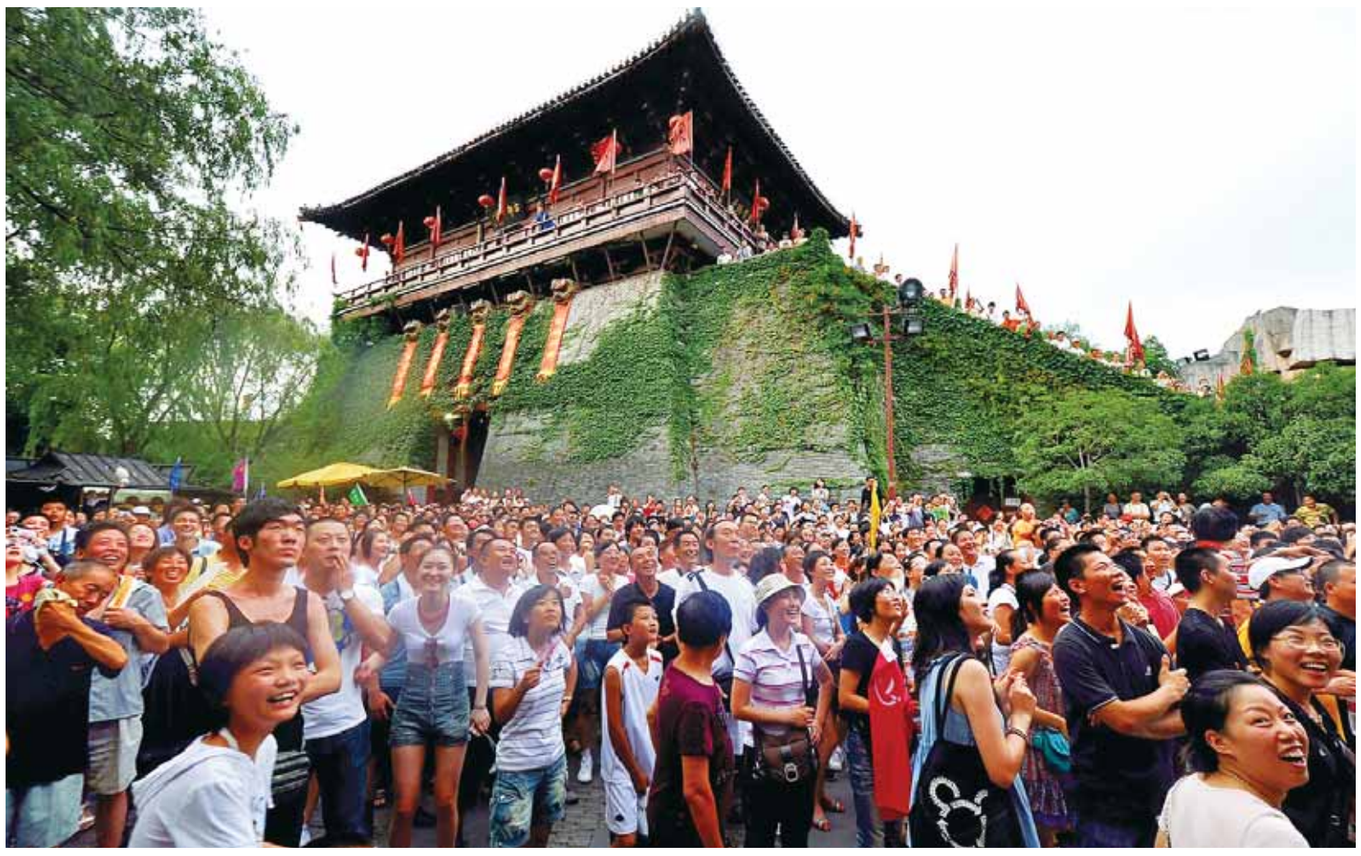
24일 한·중 수교 20년을 맞아 그동안 양국 교역량과 인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과 가장 가깝고, 교역 인프라가 우수한 광주·전남의 무역 및 관광객 유치 등 대중국 역량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3·5면〉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동중국 연안과 인접한 광주·전남은 무안국제공항, 광양컨테이너부두, 목포항과 여수항 등 교역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지만, 취약한 무역구조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의뢰해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은 1341억8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주(8억5996만달러)·전남(119억7667만달러) 수출액은 128억3664만달러로 전체의 9.5%에 그쳤다.

전남은 지난해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수출 품목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합성수지, 나프타, 석유화학합성원료 등 1차 가공상품이 108억달러로 90%에 달하는 등 대중국 수출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전자부품의 수출액이 5억4748만달러로 전체의 이 전자 제품이, 반도체의 수출이, 승용차와 냉장고 수출액이 4억 3358만 달러로 전체의 63.6%를 점유했다.



중국 상하이 민속촌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극(京劇·중국의 전통 연극)을 구경하며 박장대소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소시민들은 꾸밈없고 소박하다. 〈광주일보·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공동 사진콘테스트 수상 임수지씨 작품〉

광주·전남은 동중국 연안과 가장 가까워 교류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도를 뒤집어보면 광주·전남이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를 비롯해 경제발전 축인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홍콩 등과 최단 거리로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광주와 전남·북지역 등 전라권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1 외래관광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발길이 가장 뜸했던 곳이 전라권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전체 중국인은 출입국관리소 통계로 222만196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이 이 가운데 1353명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라권 방문객은 4.8%(중복응답)로 나타나 전체 입국자에서 지역 방문객을 추산하면 10만6000여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1년 내한한 중국인의 시도별 방문지는 서울(91.1%), 경기(27.2%), 제주(23.3%), 경상(15.5%), 인천(15.3%), 강원(11.9%), 충청(5.0%), 전라권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중국 연안과 근접하고, 기간인프라의 상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수출 및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이 극히 저조한 실태를 보임에 따라 지역의 대중국 역량강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인 동중국 연안과 근접하고 무역 인프라가 우수한 광주·전남·북지역이 당분간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산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상품개발이 병행되지 않으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本社人事

▲金鐘宅 顧問:解囑

〈8월 23일자〉

알림

광주일보 제61기 수습·경력기자 모집

내일 접수 마감합니다

광주일보 창사60주년 since 1952

60년 역사의 호남 대표언론, 신뢰받는 신문 광주일보가 새 식구를 찾습니다.

신문·방송·모바일 등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창의적 사고력으로 저널리스트의 길을 함께 갈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긍지와 보람의 광주일보에서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 전형내용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참조

해남 대흥사·순천 선암사 등 7곳 세계유산 잠정목록 사찰에 선정

국가브랜드위원회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등 7개 사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 대상 사찰로 선정됐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전통사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 등과 연구·검토한 끝에 대흥사와 선암사, 충북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을 잠정목록 등재 대상 사찰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건축 환경적 진정성, 보존성, 독창적 가치 등이 우수한 사찰을 우선으로 추천하되 불교사적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선정 사찰은 조선시대 이전에 창건된 고찰(古刹)로, 불전과 강당, 선방, 승방 등이 공존하는 종합 수행도량의 역할을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한국 전통사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